

누구나 착실히 공부한다면 합격의 순간에...



창 성 현

- 목포고등학교 졸업
-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과 4학년 재학 중
- 2022년도 5급 공채 재경직 합격
- 2022년도 입법고시 재경직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2022년 5급 공채와 입법고시 재경직에 합격한 창성현입니다. 사실 합격수기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고시는 너무나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며,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공부방법도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합격수기이건 맹신하여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취사선택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취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II. 시기별 공부

1. 전체 수험 기간 개괄

고시를 준비하기로 결심한 것은 2015년 12월 경이었습니다. 2016년, 2017년에는 공익근무를 하면서 예비, 1순환 강의를 들었고, 2018년에는 학교에 복학하여 학교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신림동에 들어와 살면서 고시공부에 집중했습니다.

2. 2018년 3월 이전 : 공익 근무 병행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목표지만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익근

무를 하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2018년 시험에 최종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이 근무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고시합격에 필요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독서실에 등록하여 공부하려고 노력했지만,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인지 거의 집중하지 못했고 공부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시공부의 맥락을 전혀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행사사랑을 통해서만 얻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시간이 계속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험의 결과는 운 좋게도 처음 응시한 2017년에 1차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합격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운이 크게 따라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2018년 1차시험에서는 합격선에서 평균 10점이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2017년 2차시험의 경우 처음으로 2차 시험장에 들어가 보기는 했으나 경제학을 조금 끄적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와 이후 공부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3. 2018년 3월 ~ 2019년 2월 : 복학하여 학교 공부와 병행

복학하여서는 공익근무 시절보다는 공부의 밀도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고시 공부의 맥락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구력이 쌓인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누구에게 나서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그저 혼자 생각하는 방향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후술하겠지만 고시 공부에 있어서 멘

토의 중요성은 매우 큼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저는 또다시 1년을 아쉽게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4. 2019년 3월 ~ 2019년 6월 : 첫 신림동 입주

2019년 1차시험에 합격하고 넉 달 만에 2차 시험에 합격해보겠다는 터무니 없는 생각으로 신림동에 입주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답안을 써본 적도 없었던 저로서는 학원 3순환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결국 행정학 3순환까지 억지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재정학부터는 수업을 수강하지 않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해매는 느낌이었지만 공부하는 매일 12시간씩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5. 2019년 7월 ~ 2020년 8월 : 제대로 준비한 첫 2차 시험

본격적으로 스테디도 참여하고 공부의 맥락을 완전히 파악한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12월 정도부터는 1차공부에 전념하는 등 2차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예정된 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됨에 따라 1차공부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5월에 1차시험을 치른 뒤 8월의 2차 시험까지 각고의 노력을 다해 공부했지만, 아직 실력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2020년 2차시험은 큰 점수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3순환 내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남

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 절대적인 공부의 양이 신림동에서 1년 반 정도 열심히 공부한 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이때 1차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이후 1차 공부의 비중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6. 2020년 9월 ~ 2021년 7월 : 예상치 못한 불합격

이제는 어느 정도 과목별로 기초가 쌓여있었기 때문에, 답안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목별로 답안 스테디를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답안특강도 열심히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2차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던 것은 심리적인 원인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2차시험을 준비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에도 지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2021년에는 3순환을 안정적으로 달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힘들면 잠깐 나가서 영화를 보고 오기도 하고,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 공부하여 심리적으로는 가장 편하게 2차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제게는 절실함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2차 기간이 5개월 정도로 길어서 다소 편하게 마음먹었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만 한다면 올해는 꼭 합격할 거라는 자기 암시가 지나치게 강했던 탓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기보다 잘하고 있다는 확신만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만 하다가 시험장에 들어갔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과 제 공부가 다소 동떨어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어떤 수준까지만 공부하면 된다고 제한된 목표를 세웠던 것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7. 2021년 8월 ~ 2022년 6월 : 마지막 시험과 최종 합격

현실적인 이유로 2022년 시험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2021년 시험의 2차 발표는 10월 중순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내가 나태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념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과서를 읽고, 문제 풀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중의 최대한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2021년 1차시험도 넉넉하게 합격하였고, 이때는 1차공부의 부담이 거의 없다는 판단하에 1월 말부터 한 달가량만 1차시험에 집중하였고, 나머지 시기는 2차공부에 집중했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2021년에 혼자 공부하며 고배를 마셨던 것을 반성하며 다양한 스테디에 참여하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각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Ⅲ. 과목별 공부: 헌법 + PSAT

1. 헌법

수험생 대부분이 기본강의, 7급 및 변시 문제 등의 선지 OX 정리, 최신판례 특강의 순서로 공부하며 저 역시 이 순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결코 기본서를 외우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

다. 헌법의 경우 항상 나오던 선지가 그대로 나오므로 이미 출제되었던 선지의 OX를 제대로 정리하기만 해도 80점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헌법에 쏟아 정작 중요한 PSAT 공부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PSAT

(1) 총 평

주변의 합격생들을 보면 다들 어떤 시기까지는 PSAT 때문에 고생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PSAT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주어진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므로, 도전 의식을 갖고 시험에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과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40문제 중 쉬운 순서대로 풀 수 있는 문제만 풀고 나오겠다고 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보다 열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본인이 만든 어떤 틀에 갇히기 쉬운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더 나은 풀이법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언어논리

우선 독해파트는 2019년 시험을 기점으로 그 경향이 크게 변화한 바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단순히 내용을 잘 파악하였는가를 묻고 있다면, 이제는 글에 주어진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의식 없이 지문을 읽기보다는, 선지화되는 유형을 기출문제를 통해 잘 정리한 뒤 글을 읽으면서 선지화될 것을 곧바로 예측하며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논리파트는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도 척척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의를 수강해야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역시 후자였으며, 개념학습 및 문제 풀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논리파트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PSAT은 결국 주어진 시간 안에 점수를 최대한 따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므로 논리파트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독해파트에서 좀 더 점수를 따겠다는 전략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노력으로 실력을 올리기 가장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정도만 열심히 풀면 계산능력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그보다는 주어진 자료의 경향을 파악하는 눈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치기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료해석은 다른 과목 대비 모의고사가 실전과 상당히 유사한 편입니다.

(3) 상황판단

독해파트와 법조문, 그리고 계산 파트는 어느 정도 풀이하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강사분들의 강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퀴즈파트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고 나면 문제 풀이 방식이 확정적인지 불확정적인지에 관한 판단은 문제를 보자마자 대강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확정적인 문제만 우선 풀이하고 남는 시간에 불확정적인 문제를 풀이하는 것입니다.

IV. 과목별 공부: 제2차시험 과목

1. 경제학

경제학은 최근 들어 수험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문제 중 2문제 정도가 정형화된 패턴으로 출제되어 그래프도 그리고 함의도 적으면서 깔끔하게 적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낯선 문항들이 주어지면서 어떻게든 답을 도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강사들이 출간한 문제집 두 종류를 풀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시험에서 원하는 답안을 써내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지만 결국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하였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라는 것은 ‘경제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였는가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원리는 다양한 교과서를 읽음으로써 체득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체화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수험생도 푸는 시중의 교재뿐만 아니라 강창민 미시경제 Problem Set, 임봉욱 저 미시경제학 연습 등의 교재를 추천합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은 무엇보다 판례를 최대한 풍부하게 적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사례를 보면 결론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많이 적은 답안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단순히 사안 포섭만 풍부한 답안은 결론이 맞았음에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출제와 채점에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로 판사 등 법조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젊은 세대의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를 보면 학설보다는 판례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흐름을 마찬가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가 풍부하게 포함된 답안을 위해 구체적으로는 판례를 단지 학-판-검-사에서 판례파트에만 하나 적고 말 것이 아니라 판례파트에 두세 개 정도의 판례를 적고, 나아가 사안의 경우에도 사안 포섭을 하면서 판례를 적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의 핵심은 결국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다는 것은 스터디에서 다른 스터디원이 쓴 사례나 이론 등이 어떠한 맥락에서 쓰였는지 살핀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다양한 교과서나 논문을 읽고 최근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챙겨 두는 것 또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 행정학 기출문제가 BTO, BTL과 같이 어느 정도 암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통적인 중요 주제에서 나왔음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주제에 대한 암기도 게을리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쓰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많은 답안을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경험상 기출문제를 한 번씩 작성하여서는 감을 잡지 못했고, 두 번째로 쓸 때부터 어느 정도 감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이론, 사례가 답안에 들어가면 좋을지 고민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친 후에 이를

적어 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관련 이론, 사례가 완전히 손에 익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것으로 행정학 공부는 다른 과목들과는 공부의 순서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개념을 완전히 익히고 암기한 후에 답안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안을 구성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암기만 해서는 결코 답안지에 현출할 수 없으며 한번 써본 내용이야만 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재정학

최근 재정학시험의 트렌드는 모든 주제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기출문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과거 약 5년간의 기출문제에서 항상 한 문제씩 킬러 문항이 출제된 바 있고 그 문제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아는 주제에서 풀이하기가 어렵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교과서를 참고하고 여러 개념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 자체를 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학을 공부할만한 교재가 많지 않다 보니 연습문제도 수록되지 않거나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는 교과서들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입 대비 산출이 매우 낮은 방법입니다. 차라리 미시경제학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킬러 문제에 대비하고, 3개년 치 강사 모의고사에 대한 답안만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 주제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 통계학

시중에 출간된 5급 공채용 통계학 대비교재를 다 풀고 나서 어떤 책을 풀지 고민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교과서를 푸는 것까지는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출판된 책들이 그러한 교과서들로부터 양질의 문제만 골라서 수록하였기 때문입니다. Hogg 저 등을 풀면서 느꼈던 것이지만 양질의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는 풀기 전에는 알 수 없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통계학 과목의 만점이 어디까지나 50점이기 때문에 점수로만 보았을 때 다른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난 통계학 강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는 정도까지만 투자하고 앞서 말씀드린 5급 공채 대비용 교재를 충실히 학습하는 데 치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 기타

1. 생활 습관

저는 월~토요일은 11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수면 시간은 6시간 30분 정도였으며 30분 이내의 낮잠을 통해 부족한 수면을 보충했습니다. 또한 아침 8시 30분에는 독서실에 나가 저녁 11시 30분 정도에 들어오는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는 1시간 정도로 식사 후 산책을 하는 등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합격수기에서 언급하듯 일주일 중 6일 이상은 순 공부 시간 10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고시 공부의 범위

가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루를 보내려고 하기보다, “오늘도 10시간 이상씩 꾸준히 공부해냈구나!” 자신을 칭찬하며 매일 긍정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스트레스 관리

단기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일요일에도 아침만 쉬거나, 하루를 통째로 쉬는 등 다양한 유형의 휴식 패턴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본인이 이 정도 쉬었으면 어느 정도 만족하고 한 주의 공부를 또다시 착실하게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 때 그만 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반기에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쉬다가, 3순환 시기에는 일요일 아침만 폭 쉬었습니다.

3. 스터디

저는 고시를 준비한다면 스터디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수기를 보면 혼자 공부했거나 강의만 듣고도 합격한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본래 본인의 답안 스타일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과 잘 맞았던 경우이고, 수험생 대부분은 자신의 답안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고시 공부가 어려운 것은 끊임없는 메타인지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본인을 고쳐나가기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터디

는 이러한 노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스터디에서 받는 어떤 조언이든 넘겨듣지 말고 최대한 답안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점차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답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VI. 나가며

수험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합격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의기소침해졌습니다. 합격한 저의 모습을 상상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상상되지 않을 만큼 합격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시 공부라는 것은 결국 단 한 번만 성공을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패의 경험이 계속 쌓이더라도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시라는 시험에 합격하는 데는 특별히 뛰어난 머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착실히 공부한다면 합격의 순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였다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을 실패해야 한다고 해서 크게 패념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을 때 나의 초심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정진해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도전을 거듭하고 계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